

※ 본 자료는 2005. 6.8(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보도자료</b>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담 당 과	자원개발과
		담 당 자	윤상흠 팀장 박종원 서기관
		전화번호	2110-5431

## 우리 기업, 해외자원개발사업 본격화

- 경제성 있는 유전·가스전 잇단 발견, 투자 확대 추세 -  
 - 정부, 행정·재정지원 강화 등 자원확보에 총력 경주기로 -

- 최근 주요국들의 무차별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노력 등이 고유가 등과 맞물려 세계적 자원확보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90년대말 경제위기 이후 일시 축소되었던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사업 참여도 최근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정부 지원 및 관련 업계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분야에서의 투자 증대 및 주요 자원의 자주개발 능력이 제고되는 것으로 밝혀짐
  - 우리 기업의 유전개발 분야 투자액은 '01년 3.7억불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6.7억불로 확대되었고 금년('05년)에는 8억불 이상 투자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 우리나라의 원유 자주개발율도 '01년 2.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8%를 기록한데 이어 금년에는 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01년에 비해 원유 자주개발능력이 2.5배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금년 들어 주목할 만한 점은
  - ① 국내외에서 경제성 있는 유전·가스전 발견성과 거양
  - ② 기발견된 가스전의 수요처 확보로 개발 본격화의 계기 마련

- ③ 유망 지역에서의 개발권 획득
- ④ 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조직·인력도 확대 추세
- ⑤ 전문 공기업-민간기업간의 컨소시엄 구성 활성화로 민간의 대형 프로젝트 참여 저변도 확대
- ⑥ 적극적 자원외교로 전략지역 자원개발 참여기반 마련

< 금년중 발견 성공한 주요 유전·가스전 발견 사업 >

- 캄보디아 해상 A 광구 유전 발견 : 매장량은 내년중 확정 (2월)
- 동해-1 가스전 추가 가스 발견 : 약 80만톤 규모 (3월)
- 미얀마 A-1 광구 추가 가스 발견 : 매장량은 내년 확정 (4월)
- 베트남 11-2 광구 유전 발견 : 약 4,000만 배럴 규모 (5월)
- 베트남 11-2 : PetroVietnam과 가스매매계약 체결로(4월) '06년 생산
- 예멘 마리브 : Total, 한국가스공사 등과 계약 체결로(2월) '08년 생산

< 금년중 매매계약 체결로 개발이 가시화된 주요 가스전 개발사업 >

- 베트남 11-2 : PetroVietnam과 가스매매계약 체결로(4월) '06년 생산
- 예멘 마리브 : Total, 한국가스공사 등과 계약 체결로(2월) '08년 생산

-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그간 물리탐사 등을 통해 석유·가스 발견이 유망한 광구의 탐사시추가 다수 예정되어 있어 대형 유전·가스전의 발견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현 사업추진 추세가 유지될 경우, '08년 원유 자주개발율 10%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최근 조성된 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참여 노력이 구체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외자원개발 가용 역량을 결집하고 관련 제도 정비 및 재원 확충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임
  - 우선 석유공사 개발부문의 역량을 제고하여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탐사 성공 불응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임

- 또한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신고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해외유전개발에 대한 정부 재원 확충을 적극 추진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
- 아울러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비전문 공기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이 주업무가 아닌 산하기관, 공기업의 경우 소관 중앙부처장 등의 추천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임

<붙임> 해외자원개발 추진현황 및 활성화 계획

# 해외 자원개발 추진현황 및 활성화 계획

'05. 6



< 베트남 15-1광구 원유생산 모습 >

産業資源部

## 목 차

1. 국내외 현황 .....	1
2. 우리 해외자원개발사업 최근 동향 .....	2
2. 활성화 기본 방안 .....	4
3. 향후 계획 .....	5
【참고】 최근의 주요 국내외 유전개발 성과 사업 .....	6

# 1. 국내외 현황

- 미국의 對중동 영향력 확대, 중국의 에너지 확보 노력 등이 고유가와 맞물려 세계적 자원 확보 경쟁으로 격화되는 양상
  - 미국 : 이라크·中央亞 미군주둔 등 에너지 해게모니 유지노력
  - 중국 :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확보에 국력 집중
  - 일본 : 조어도·동중국해(춘샤오 가스전) 영토 분쟁, 동시베리아 송유관 등 석유·가스 확보문제로 중국과 대립
  - 러시아 : 푸틴 집권이후 에너지·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력 강화

□ 주요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수입하는 우리의 경우도, 안정적인 자원 확보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

- 지난해 에너지 수입액은 496억불로 수출 1, 2위 품목인 자동차(266억불), 반도체(265억불)의 수출합계액에 육박

\*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 : ('90) 109.3 → ('00) 378.9 → ('04) 496.0억불

- 그러나 우리의 원유 자주개발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며, 투자 규모도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저조

\* 원유 자주개발율 : 한국 3.8%, 일본 10.3%, 이태리 44.9%, 프랑스 87.7%

< 韓-日 해외 유전개발 투자규모 비교('61-'03) >

구 분	일본	한국	비 고
○ 총 투자액(정부+민간)	550 억불	45 억불	1/12수준
- 정부 자원액	224 억불	10 억불	1/22수준

□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님 주재 「국가에너지자문회의」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마련하고 있으며,

- 원유 등 전략광물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4~'13)」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자원 확보 전략을 추진중

## 2. 우리 해외자원개발사업 최근 동향

- 우리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최근 들어 정부지원 및 기업참여 확대로 점차 활성화되는 분위기
  - 유전개발 투자액 : ('01) 3.7 → ('03) 5.9 → ('04) 6.7 → ('05추정) 8억불
  - 원유 자주개발율 : ('01) 20 → ('03) 3.0 → ('04) 3.8 → ('05추정) 5.0%

< 해외 자원개발 현황('04말) >

구분	사업 진출현황	확보 매장량
유전 개발	24개국, 56개 사업	원유 : 7억배럴, 가스 : 9천만톤(LNG환산)
일반광 개발	29개국, 103개 사업	유연탄 : 910백만톤, 철광석 35백만톤

- 특히, 금년들어 주목할 만한 점은

### ① 국내외에서 경제성있는 유전·가스전 발견성과 거양

- 캄보디아 해상 A 광구 유전 발견 : 매장량은 내년중 확정 (2월)
- 동해-1 가스전 추가 가스 발견 : 약 80만톤 규모 (3월)
- 미얀마 A-1 광구 추가 가스 발견 : 매장량은 내년 확정 (4월)
- 베트남 11-2 광구 유전 발견 : 약 4,000만 배럴 규모 (5월)

### ② 기발견된 가스전의 수요처 확보로 개발 본격화의 계기 마련

- 베트남 11-2 : PetroVietnam과 가스매매계약 체결로(4월) '06년 생산
- 예멘 마리브 : Total, 한국가스공사 등과 계약 체결로(2월) '08년 생산

### ③ 유망 지역에서의 개발권 획득

- 러시아 : 西캄차카 유전 개발 채무약정 체결 (2월)
- 카자흐스탄 : 카스피해 잠빌 광구 개발 협력의향서 체결 (4월)
- 예멘 : 70 광구 유전 운영권 획득 (4월)

### ④ 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조직·인력도 확대 추세

- SK, 대우, GS 등을 중심으로 현지 사무소 개설 및 사업인력 확충
- 석유공사도 기술 인력을 대폭 확대 ('05년 20명 신규기술인력 채용)

⑤ 전문 공기업-민간기업간의 콘소시엄 구성 활성화로 민간의 대형 프로젝트 참여 저변도 확대

- 카스피해 잠빌 광구 : 석유공사, SK 등 5개업체
- 러시아 캅카스 광구 :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7개 업체
- 베트남 신규광구 입찰(5월) : 석유공사, 대우 등 5개 업체
- 중소기업들도 중기협을 중심으로 우즈베크 유전개발 참여 모색중

⑥ 적극적 자원외교로 전략지역 자원개발 참여기반 마련

- 정상 자원외교 : 한-콩고(3월), 한-우즈베크(4월), 한-브라질 (5월)
- 정부간 자원협력위 개최 : 한-베트남(4월) 한-카자흐(4월), 한-브라질(5월)

□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그간 물리탐사 등을 통해 석유·가스 발견이 유망한 광구의 탐사시추가 다수 예정되어 있어

○ 대형 유전·가스전의 발견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

< 하반기 시추가 예정되어 있는 유망 탐사광구 >

- 인도네시아 NEM 1, 워캄 광구 시추 (7~11월)
- 아프리카 베넌 2 광구 시추(10월), 에리트리아 광구 시추(7월)
- 베트남 15-1 광구(7~8월) 등

□ 현 사업추진 추세가 유지될 경우, '08년 원유 자주개발을 10%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원유 자주개발 현황 및 목표 >

	'04	'05추정	'06추정	'07추정	'08추정
자주개발물량(천b/d)	86	114	150	196	235
자주개발율(%)	3.8	5.0	6.5	8.4	10

□ 정부는 최근 조성된 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참여 노력이 구체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 해외자원개발 가용 역량을 결집하고 관련 제도 정비 및 재원 확충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3. 활성화 기본 방안

#### 해외자원개발 가용 역량을 결집

##### □ 공공부문

- 석유공사 개발부문의 역량을 제고하여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
  - '13년까지 30만 b/d의 생산을 통해 지역메이저로 육성
    - \* 현재 석유공사 혁신 T/F를 구성하여 석유공사 개발부문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중
- 가스공사, 한전, 광진공, 석탄공사 등 자원분야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참여도 적극 확대

##### □ 민간부문

-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탐사 성공불응자 규모를 확대
  - \* 성공불 응자 확대 : ('04) 664억원 → ('05) 1,200억원
  - \* 「응자 심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심사기능도 확충
- 수출보험공사의 자원개발 부보 지원제도 마련을 추진
- 공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대형 프로젝트 참여여지 확대
-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보·컨설팅기능 강화

#### 해외자원개발 행정·재정 지원강화

##### □ 신고제 취지에 맞도록 신고 수리절차를 간소화

- 해외자원개발 신고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
  - 신고시 계약조건 적정성 등의 정부 검토 규정을 →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
  - 현실적으로 시행 곤란한 공무원 실지조사 규정 삭제 추진

민간에 대한 사업성 평가 지원시스템 마련

-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신규 민간기업이 원하는 경우 공공 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사업성 평가 지원

\* 지질자원연구원의 인력·예산을 보강하고 지자연내에 석유·광물기술정보 센터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 확대방안 강구

- 에너지 세입·세출 구조의 개편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 재원 확충을 적극 추진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등 전력관련 사업에 지원하고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최대한 활용

- 유전개발 펀드 도입 등 민간재원 유입 방안도 적극 검토

\* 현재 T/F를 구성하여 펀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중

**非전문 공기업의 사업참여 심사 강화**

정부 산하기관, 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 해외자원개발이 주업무가 아닌 산하기관, 공기업의 경우 소관 중앙부처장(또는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을 의무화
- 한편, 해외자원개발 신고수리 전결권자를 현행 과장에서 → 국장으로 조정

#### 4. 향후 계획

금년말까지 석유공사 혁신 T/F, 유전개발 펀드 T/F 운영

- 석유공사 개발부문 역량강화 및 펀드 조성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

해외자원개발 관련 법령 개정

- 6~7월 해외자원개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9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 정기국회제출

【참고】

**최근의 주요 국내외 유전개발 성과 사업**

**1. 캄보디아 해상 A 광구 유전발견 ('05.2)**

- '04.10~'05.2간 5공의 탐사 시추에서 원유를 발견
  - 구체 매장량은 '06년까지 9~10공의 평가시추가 완료된 이후 확정될 예정
- 지분구조 : GS 칼텍스 15%, 세브론텍사코 55%, MOECO 30%

**2. 동해-1 가스전 추가 가스매장량 확보 ('05.3)**

- '04.11월 부터 상업 생산중인 동해-1 가스전(매장량 : LNG환산 500만톤) 인근에서 약 80만톤 규모의 추가 가스전 발견('05.3)
- 추가로 발견된 가스전의 경우 동해-1가스전과의 거리(약5km) 감안시 경제성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

\* 기존 동해-1가스전에 Pipe Line 연결시 별도의 투자비 불필요

**3. 미얀마 A-1 광구 추가 매장량 발견 ('05.4)**

- 대우는 '04년 1월 미얀마 A-1 광구 쉘 구조에서 가스전을 발견 (매장량 : 4~6조 입방피트, LNG환산 0.8~1.2억톤)한데 이어,
- '05.4월 쉘 구조 인근 쉘퓨 구조 시추에서 가스를 추가로 발견
  - 매장량은 금년 하반기~내년중 예정된 평가 시추이후에 확인 가능하나 인근 쉘 구조와 연계하여 개발할 것이므로 상업성은 확보 가능

#### 4. 베트남 11-2 광구 신규 유전발견 ('05.5)

- '06년말 가스 생산예정인 베트남 11-2광구에서 약 4,000만 배럴의 신규 유전 발견 (현재 개발중인 가스전에서 약 50km 지점에 위치)
- \* 베트남 11-2 광구는 우리 기업이 운영권(지분 75%)을 갖고 있으며 총리 베트남 방문시('05.4) 가스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11-2 광구내에 4개 정도의 유망구조가 더 분포하고 있어 추가 매장량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하반기중 시추)
- \* 현재 베트남에서는 15.1광구에서 원유를 생산중에 있음(7.5만 b/d)

#### 5. 에멘 마리브 가스전 수요처 확보

- 수요처 확보 곤란으로 가스전 개발이 지연된 상태였으나
  - '05.2월 Total, 한국가스공사 등과의 HOA(매매기본계약) 체결로 '08년말부터 연 670만톤의 LNG 생산 예정
- 사업자 및 참여지분
  - Total(불) 42.92%, YGC(에멘국영가스사) 23.12%, Hunt(미) 18.01%
  - 한국측 : 15.95% (SK컨소시엄:9.99%, 현대종합상사: 5.96%)
    - \* SK컨소시엄 : SK 7.22%, 삼환기업 1.67%, 석유공사 1.11%
- 확인매장량 : 10조 입방피트 (LNG환산 약 2억톤)

#### 6. 카자흐스탄 카스피해 유전개발

- '04.9 카스피해유전 공동 개발에 합의
- '05.4 한-카자흐 자원협력위(서울)에서 카스피해 잠빌광구 개발 협력의정서를 체결하고 '05.12월부터 본격 탐사 예정
  - \* 협력의정서 주요내용 : 잠빌 광구 개발에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 7. 러시아 캄차카 유전개발

- '04.9 VIP 방러시 동시베리아 유전 공동 탐사·개발에 합의
  - \* 한국석유공사·Rosneft社간 유전 공동개발 MOU('04.9.21) 체결
- '04.11 기술평가 결과 잠재력이 뛰어난 西캄차카 지역 공동개발에 합의하고 (10억 배럴 이상의 유망광구 다수 존재 가능)
  - '05.7월부터 西캄차카 지역에 대한 물리탐사 예정이며 '05년말까지 Rosneft와 석유공사간 합작회사(J/V) 설립 예정
    - \* '05.2월, 석유공사-Rosneft간 재무협약(IFA) 서명하고 '05년~'06년 물리탐사, '07년 시추개시예정

## 8. 예멘 70광구 운영권 획득

- '05.4월 석유공사 컨소시엄은 예멘정부와 PSA(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탐사개시 예정
  - \* 우리측 참여회사 : 석유공사 65%, 삼성물산 20%, 대성산업 15%
- 추정매장량 : 최대 2억배럴

## 9. 우즈베키스탄 유전개발

- '05.5월 우리 석유공사와 중기협은 우즈베크 국영석유사와 유전개발협력 MOU 체결
- 우즈베크 유전탐사 국제컨소시엄에 참여함으로써 카자흐스탄에 이어 중앙아시아 지역의 신규 유전개발 참여 계기 마련
  - \* 석유공사는 우즈베크 국영석유사, 러시아(Lukoil), 미국(Schlumberger) 등과 균등지분을 가질 예정이며, 국내의 중소기업도 석유공사 컨소시엄에 참여 예정